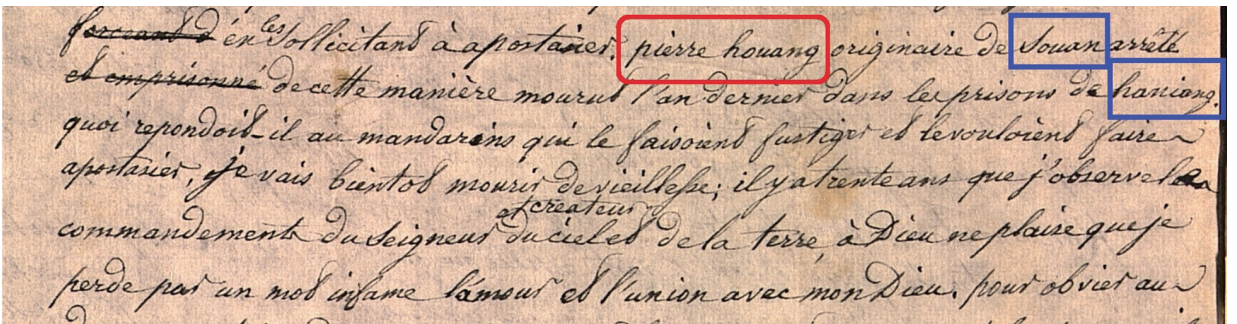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하느님의 종’ 황석지 베드로에 대한 최초의 교회측 기록 - 모방 신부 서한에서 확인되다

저번 7월호에 124위 순교복자 중 3위[이도기 바오로, 박취득 라우렌시오, 김세박 암브로시오]에 대한 기록이 모방(Maubant) 신부 서한에서 확인되며, 이 기록은 3위 복자에 대한 교회측 자료 중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최초의) 것임을 밝혔습니다. 모방 신부의 서한에는 다른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더 있는데, 현재 ‘하느님의 종’으로 시복 수속 절차에 있는 ‘황석지 베드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방 신부 서한에는 ‘황 베드로’로 나오는데, 다른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황석지 베드로’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황(석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1] 모방 신부의 1836년 4월 4일자 서한(A-MEP, Vol.1260, f.84)

황석지 베드로에 대한 교회측·관변측 자료들은 아직 수합·정리·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달레(Dallet) 신부의 저서를 역주한 『한국천주교회사』(종권 196~200쪽)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편찬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2018, 109~111쪽)에 황석지의 약전이 실려 있고, 관련 자료가 각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책자가 편찬될 때에는 모방 신부 서한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황석지에 대한 모방 신부의 기록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옥중 순교자 황 베드로

모방 신부는 1836년 4월 4일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배교를 거부하고 옥

사한 신자의 이름과 그 진술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수원(Souan)에서 살던 황 베드로(pierre houang)는 ... 체포되어 작년[1835년]에 한양(Haniang)에 있는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배교하라고 강요하면서 자기를 고문하게 하는 관원들에게 베드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너무 늙어서 죽을 텐데, 왜들 그러신가?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왔는데, (이제 배교한다는) 혐오스러운 말을 한 마디 하여 천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분께 등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최세구 신부 번역 - 『상교우서』 54, 35쪽]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옥중 순교자의 이름이 ‘황 베드로’이고 수원에서 산 적이 있으며 1835년에 서울의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당시 나이나 고향, 가족 관계, 입교 과정, 교회 내 활동, 체포된 연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심문 과정에서 황 베드로가 배교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한 말이 전해져 기록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용이지만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면,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나오는 황사윤(Hoang Sa ioun) 베드로, 『일성록(日省錄)』에 나오는 황석지(黃石之)와 동일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나오는 옥중 순교자 황사윤 베드로

다블뤼 주교는 1858~1859년에 편찬한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ff.68~70)[이하 ‘순교자 약전’으로 줄임]에서 1833년 음력 5월 서울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사한 황사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순교자 약전’에 의하면, 황사윤은 지방 가문 후손으로 수원 샘골에 살았는데 40세 때 천주교를 알게 되어 가족들을 모두 입교시켰습니다. 이후 아내와 자식 모두를 잃었고, 서울로 올라가 조카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1832년 음력 9월 20일(양력 10월 13일)에 이웃에 사는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으며,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감옥으로 옮겨진 그는 옥중의 비신자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 66세 또는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때가 1833년 음력 5월이었습니다. 그에게 교리를 들은 비신자 죄수[김 진세는 감옥에 찾아온 황사윤의 가족들에게 그의 임종과 관련된 기적 일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순교자 약전’의 황사윤 기록은 위에 언급한 모방 신부의 서한 내용에 비해 더 자세합니다. 이름[황사윤]과 거주지[수원 샘골]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며, 입교했을 때 나이, 가족 관계, 체포된 날짜, 사망 당시의 대략적 나이와 시기, 옥중에서 전교 활동과 임종 당시 기적 일화도 나옵니다. 반면, 옥중에서 사망한 일시는 두 기록이 서로 다른데 모방 신부는 서한 작성 시점에서 ‘작년’(1835년)이라고 했고, 다블뤼 주교는 1833년 음력 5월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일시 문제는 뒤에서 『일성록』 자료를 소개할 때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모방 신부가 기록한 황 베드로의 배교 거부 진술은 위의 ‘순교자 약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블뤼 주교가 1860년경에 편찬한 『조선 순교사 비망기』(ff.353~356)[이하 ‘비망기’로 줄임]의 황사윤 기록에는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방 신부 서한의 ‘황 베드로’와 다블뤼 주교 기록의 ‘황사윤 베드로’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블뤼 주교는 ‘순교자 약전’을 마무리하는 순교자 명단 부분(f.286)에서 황사윤 베드로를 다시 언급하면서 ‘새 증언을 확보했다’고 적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비망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비망기’의 황사윤 기록은 ‘순교자 약전’에 비해 양도 더 많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순교자 약전’에는 사망 당시 나이나 66세 또는 67세로 나오는데 ‘비망기’에는 70세 가량으로만 나옵니다. 대신 ‘순교자 약전’에서 조카라고만 나온 것을 ‘비망기’에는 황 안드레아라는 조카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같이 붙잡힌 신자의 숫자에 대해 ‘비망기’에서는 10명이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비망기’에는 황사윤의 태생지가 수원 샘골로 나오며, 자녀가 네 명이라고 나옵니다. ‘비망기’에는 심문 과정과 옥중 생활이 ‘순교자 약전’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 배교를 거부한 황사윤의 진술 [‘비망기’ f.355]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뵈тий요? 나는 곧 늙어 죽을 것이요. 내가 하늘과 땅을 빚어 만드신 주님의 계명을 지켜온 지 서른 해가 되었소. 나더러 더러운 말 한마디로 일순간 내 하느님의 사랑을 잃기를 바라는 것이요?. [연숙진 번역 - 『교회와 역사』 488, 5쪽]

모방 신부 서한과 ‘비망기’에 나오는 황사윤의 진술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번역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판독)을 직접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 베드로 진술 (모방 신부 서한)	황사윤 베드로 진술 (비망기)
je vais bientôt mourir de vieillesse: Il y a trente ans que j’observe les commandements du Seigneur et créateur du ciel et de la terre,	je vais bientôt mourir de vieillesse, il y a trente ans que j’observe les commandements du Seigneur, Créateur du Ciel et de la terre,
à Dieu ne plaise que je perde par un mot infâme l’amour et l’union avec mon Dieu.	et vous voudriez que par une parole infâme, je perde en un instant l’amour de mon Dieu!

황사윤 진술의 앞 부분은 모방 신부 서한이나 ‘비망기’ 모두 거의 똑같습니다. ‘vieillesse’ 다음에 오는 문장 부호 차이라든가, ‘du Seigneur’ 다음에 쉼표가 있느냐 ‘et’라는 단어가 더 있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뒤의 부분도 문장의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를 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모방 신부와 다블뤼 신부가 각자 다른 자료를 입수하여 프랑스로 번역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이 아주 비슷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관변측 자료인 『일성록』에 나오는 ‘사학 죄인’ 황석지(黃石之)

교회측 자료 외에 관변측 자료인 『일성록』에도 황사윤 베드로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천주교 신자 ‘황석지’가 확인됩니다. 순조 33년(1833) 10월 27일(양력 12월 8일), 11월 8일(양력 12월 18일), 11월 9일(양력 12월 19일) 기록에 의하면, 황석지는 충청도 홍주 당산리(堂山里) 출신으로 수십년 전에 이웃에 사는 김취득(金取得)에게 배워 천주교에 입교했고, 1816년 김취득이 순교한 이후에도 그의 집에 찾아가 천주교 서적을 가져오는 등 신앙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1821년 처자식을 모두 잃고 나서 서울 아현에 사는 조카(형의 아들) 집을 왕래했습니다. 그러다가 1833년 10월 21일(양력 12월 2일) 밤에 아현동에

서 인근 거주 신자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배교한 다른 신자 6명과 달리 황석지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 11월 9일(양력 12월 19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황석지의 마지막 진술은 “(천주교) 책을 읽고 배운지 이미 수십 년이나 오래되었는데 어찌 갑자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誦習此書 既爲數十年之久 則何可猝地變改) 였습니다. 즉, 수십 년이나 믿고 따랐던 천주교를 배신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황석지에 대한 『일성록』 기록이 ‘순교자 약전’이나 ‘비망기’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진술과 황석지의 최후 진술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성록』 기록에는 ‘수원 샘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체포된 시기와 사형 선고를 받은 시기가 다른 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1832년 음력 9월에 체포되고 1833년 음력 5월에 옥사했다고 나오지만, 『일성록』에는 1833년 음력 10월에 체포되고, 11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황석지가 황사윤과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다블뤼 주교 기록에서 나오는 1833년 음력 5월은 사망(순교) 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성록』에는 황석지가 사형을 당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즉, 정확한 사망(순교) 일자를 알 수 없고, 옥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다블뤼 주교 기록과 『일성록』 자료를 종합하여 황 베드로의 이름과 순교일(순교 형식)을 ‘황석지 베드로’와 ‘1833년 11월(음력) 이후 옥사’로 정했습니다.

만약 황석지가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감옥에서 죽었다면, 모방 신부가 언급한 1835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도 장기간 감옥에 갇혀 있던 신태보 베드로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1차 사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황 베드로=황사윤 베드로=황석지의 사망(순교) 일시는 지금처럼 1833년 11월(음력) 이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방 신부의 서한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 ‘하느님의 종’ 황석지(황사윤) 베드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방 신부 서한이 황석지 베드로에 대한 최초의 교회측 기록이라는 사실과 황석지 베드로의 순교 일시가 모방 신부 서한의 기록처럼 1835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1호 원고 모집

- 투고 마감일 : 2022년 7월 31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